

“국민각자가 서까래노릇 제대로 해야죠”

환도후 국립공업연구소장 지낸

李 采 鎬 선생

대담/朴澤奎 <건국대 이파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세아들도 과학기술자

근 30여년만에 선생님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국립공업연구소장으로 계실 때 동승 동집무실로 여러번 방문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처럼 단아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감개가 새롭습니다. 우선 가족이야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아내와 함께 마음 편하게 한강을 바라 보면서 살고 있지요. 4남1녀의 자녀중 의학을 전공해서 현재 한양대 소아과과장으로 있는 셋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화공, 토목공학, 기계공학 등 과학기술계통을 전공한 과학기술자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사모님과 함께 이제 회혼을 맞이하시는데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계십니다. 사모님과 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어요. 그저 60년을 별 탈 없이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오사까(大阪) 신학교를 나온 아내(王宗順여사)와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29세때 동갑끼리 결혼했지요.

선생님께서도 남강 이승훈선생님이 설립하신 오산학교를 졸업하셨는



◇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며 박태규 교수와 대담을 나누고 있는 원로 과학기술자 이채호 선생.

데 오산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배경 등 어린시절의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16세때 보통학교 입학

평남 안주군 용화면 삼산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사랑방에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다 한학을 배우도록 했어요. 15세때 3.1운동이 일어났고 이때 선봉에 섰던 청년이 우리집에 피신했기에 한여름 우리집에서 이분과 함께 지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다음해 16세때 안주 보통학교 2학년이 들어갔지요. 코흘리개들과 함께 공부하니 매우 답답했는데 선생님은 시험지 채점은 항상 나를 시켰어요. 보통학교 2학

년 1학기를 마치고 안주에서 가까운 정주 오산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버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숙부로부터 여비를 타서 오산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지요. 당시 20여명이 응시했는데 7명이 합격, 오산학교에 입학이 허가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기적같이 느껴져요. 이 당시 오산학교는 진급하거나 졸업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나는 민족학교인 오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오산에서는 한문교육뿐만 아니라 민족교육, 특히 애국애족의 정신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만식선생님께서 받은 애국애족의 강한 정신은 나의 일생을 통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지요. 4년제였던 오

산학교를 졸업한 다음 전문학교에 입학했는데 5년제학교 졸업이 필요해서 서울 경신학교에 편입하여 1년후에 졸업하였지요.

그후 오사카고공(大阪高工)에 입학하셨는데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 등 일본 유학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나는 농촌태생이어서 농사짓는 것만 보았는데 당시는 고당선생님의 물산장려운동 즉 국산장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여서 기계공업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농기계, 기차, 비행기 만드는게 모두 기계공업이라 믿어 당시 기계공업의 중심이었던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고공 공학부기계 공학과에 입학했는데 4년후 29년 졸업당시 이 학교가 오사카제대(大阪帝大)로 되면서 이 대학 1회 졸업생이 되었지요. 2학년때 오사카 유학생회장직을 맡게되었고 조선인이 중심적인 조선인교회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설교도 했지요.

대학을 졸업하신게 1929년인데 해방되기까지 15년간 어디에 계셨으며 어떤 일에 종사하셨습니까.

해방전 변리사사무실 開設

일시 귀국해서 취직하려고 했으나 조선 총독부에서 오산출신에게 취직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기계공학을 할 생각은 엄두도 못내고 발명장려나 해보겠다 결심해서 변리사가 되기로 작정했지요. 오사카에서 가장 큰 아사무라(朝村) 특허사무소 사무직원으로 4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다음 일본변리사시험을 치러 합격했습니다. 변리사자격을 얻은 다음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조선특허대리국 간판을 걸었는데 우스운 이야기지만 동아일보 맞은 편에 위치한 이 특허사무소의 간판은 글자 하나의 가로, 세로 길이가 자그마치 1.5m, 1m정도였으니 대단했지요.



선생님은 해방후 조선기계기술협회를 창립하셨고 특허법을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광화문 네거리의 내 사무실 건너편 동아일보에는 한민당, 우리 사무실옆 빌딩에는 여운형씨의 근로인민당 사무실이 있었지요. 이것이 모태가 되어 1945년 9월에 조선기계기술협회가 창립되었는데 기술계통의 협회로서는 가장 먼저 설립된 단체라고 할 수 있지요. 나는 창립당시 초대회장을 맡은 이래 48년 10월 대한기계학회로 개칭된 다음에도 51년까지 회장 그후에도 학회장을 역임했지요. 그런데 46년 1월부터 특허권이 일본에 예측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미국인 고문과 함께 7년동안 특허법을 제정하게 됐

어요. 46년에 특허원장, 49년에 특허국장을 맡았고 몇년후 상공부 공업국장을 거쳐 53년부터 국립공업연구소장을 맡게 됐는데 이때부터 연구소와의 인연이 시작된 셈이지요.

서울로 환도한 다음 국립공업연구소장으로 계셨는데 이때는 모든 것이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연구소시설이라고는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요.

특허도 연구만큼 중요

당시만해도 연구란 것을 해보지 않았고 연구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었지요. 당시 원조기관으로 USOM이 있었는데 회의에 참석하여 한나라의 국립공업

연구소를 거들떠 보지 않은 원조기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대표자들에게 욕을 퍼부었지요. 이것이 도화선이 됐는지 어쨌든 당시로서는 거액인 백여만불의 원조를 받게 되었지요. 다른 자금도 합하여 건물도 새로 짓고 시설도 보완했어요. 찻잔하나 못만드는 당시 제품을 개발해서 목포도자기회사에 제공하였고 방직 제지 등 여러분야의 연구를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촉진제의 구실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상공부 특허국장 등

느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한계가 정해지는데 대개 약소국가가 큰 나라에 당하게 마련이지요. 해방된 우리나라가 일본의 특허 예측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국변리사고문과 함께 특허법 제정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만든 특허법속에 숨어있는 그 참뜻을 사람들이 어느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지요. 내가 만들 때는 특허법 하나였는데 그후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으로 개정됐지요. 관직에서 물러난 후 변리사 사무소를 개업해 보니 특허제도로 이길 방법이

양성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연구소, 산업기술계에 진출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고 있는 것을 보면 흐뭇한 바도 있지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나 연구가 지속성이 있어야하며 연구시설, 연구풍토, 인력양성 등 이 모든 것이 장기적인 목표 아래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특허 연구결과에 대해 실효성있게 대처해야해요. 실효를 얻는데 급선무는 특허이므로 특허가 토대로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특허를 얻어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몇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다해도 특허를 얻지 않으면 그 효과가 보호를 받고 극대화될 수 없습니다. 생활이 향상되고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방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람만 한번 잘못 불면 쓰러질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국민각자가 기둥이거나 서까래노릇을 제대로 해야만 나라가 발전될 수 있어요.

선생님 끝으로 평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 나이 금년에 만88세인데 그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발전하였으면 하는게 바람이지요. 특히 오산 학교에서 받은 민족교육, 애국애족의 정신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지도자, 지사로서의 고당의 위대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지요. 오산, 남강 이승훈선생님, 그리고 고당 조만식선생님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생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을 누리시면서 사모님과 함께 회혼 이후의 또다른 새롭고 보람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60년간을 별탈없이 함께 살 아온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 드린다는 이 채호선생부부.

의 요직을 맡으셨고 특히 오랫동안 국립공업연구소장으로 불모지였던 연구소의 연구여건조성, 연구인력 확보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서는 변리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선구자이신데 특허분야에 대한 선생님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특허법 등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업소유권이라는게 말하나, 글하나의 표현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지기도 하지요. 말 한마디, 해석여하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되어 권리의 폭이 정해져서 엄청난 규모의 재산권이 결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체재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설명을 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부 국제특허사무소를 개설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나 한국에서는 변리사노릇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본의 예측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내 주장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무체재산권의 본질을 알고 기술을 아는 사람이 보다 더 많이 변리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제까지의 내 지론에는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께서서는 국립공업연구소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데 나름대로 힘을 쏟았고 이곳에서 훌륭한 연구인력을